

탄핵 정국 여파... 연말연시 기부 문화 '주춤'

불황·사회 혼란에 기부 심리 위축
구세군 자선냄비 20~30%기량 급감
사랑의온도탑 전년비 기부금 줄어
헌혈자 부족·혈액 수급도 차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연말연시의 따뜻한 나눔 문화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경제 불황과 사회적 혼란이 겹치면서 기부 단체들이 평소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취약계층의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질 전망이다.

12월이면 연례행사처럼 등장하는 구세군 자선냄비도 올해는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18일 광주 동구 충장로에 설치된 구세군 자선냄비 주변에서는 관계자들이 '딸랑딸랑' 종을 울리며 기부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오후 12시~6시까지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발길이 이어졌던 예전과 달리 6시간을 내리 종을 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읍시다"라고 외쳐도 눈치를 살피다 지나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구세군 관계자는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예년에 비해 20~30%가량 적은 금액이 모였다"며 "지난해에는 충장로에서만 900여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는데, 올해도 그만큼 많이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



침체된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기부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시민들이 자선냄비에 성금을 넣고 있다. 나건호 기자

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대표 모금 활동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 사랑의열매)의 '희망2025나눔캠페인' 참여율도 지난해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사랑의 온도탑의 올해 목표액은 51억원으로 지난 16일 오후 기준 15억 4200만원(30.1도)의 모금액이 모였다. 지난해는 목표액을 50억7000만원으로 설정한 이후 캠페인에 총 55억9700만원

이 모이며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지난해 대비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는 등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광주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정치적인 이슈까지 겹치게 돼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문화가 위축되는 것 같다"며 "광주시민들은 과거에 서로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살피던 오월정신을 지니고 있다. 올해도 많은 시민분들이 주변을 돌아보고 손을 내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

다.

전남 사랑의열매는 '희망2024나눔캠페인'에서 목표액인 105억5000만원을 넘어선 125억1000만원의 모금액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지만 올해는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남 사랑의 온도탑의 경우 최종 모금액 113억9000만원 중 지난 17일 오후 기준 31억1000만원이 모여 27.3도를 기록했다. 동기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27억7000만원(31도) △2022년

28억7000만원(28.9도) △2023년 44억 3000만원(42.2도)으로 예년에 비해 올해 참여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전남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올해 많은 이유로 나눔문화는 개인, 기업, 단체를 막론하고 더욱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러한 시기일수록 크고 작은 나눔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뜻한 나눔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소중한 힘이 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헌혈의집에도 헌혈자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어 혈액 수급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협회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12일 기준 광주·전남지역 혈액 보유량은 4.6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혈액형별로 살펴보면 A형(4.4일분), B형(6.3일분), O형(4.4일분), AB형(2.2일분)으로 보유량이 가장 적은 AB형은 가장 많은 B형 대비 2배가 넘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5.6일분으로 올해 혈액 수급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김동수 대한적십자협회 광주전남혈액원장은 "본격적인 한파와 학교 방학철이 시작되면 혈액수급이 어려워지기에 사·도민께서 생명나눔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성아 기자

전남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잇따라

장흥·화순·무안·목포·영암 130명
진화위, 국가 사과·피해회복 권고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실태가 드러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93차 위원회에서 '장흥·무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영암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화순·

무안·목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장흥·무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48년 3월부터 1951년 12월 사이에 장흥 주민 77명과 무안 주민 11명이 우익 인사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신청사건에 대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6·25사변피상자명부, 제적등본, 족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적대세력에 의해 장흥 지역 주민 77명과

무안 지역 주민 11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화순·무안·목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0월 사이에 화순·무안·목포 지역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 18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화위 조사 결과 화순군 7개 면 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 8명이 군경의 수북작전 및 부역혐의자 색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희생되거나 실종됐고, 무안지역에서는 주민 10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가해 주체는 제11사단 소속의 군인과

화순·무안경찰 소속의 경찰으로 드러났다.

'영암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영암군에 거주하던 주민 24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1950년 7월 중순 경찰에 의해 희생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화위 조사 결과, 1950년 7월 15일과 같은 달 22일 영암지역 주민 24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영암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출두 요구를 받는 형식으로 예비검속돼 영암경찰서 관할 지서

및 영암경찰서 등에 구금됐다.

이들은 영암경찰에 의해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담재 및 금정면 연소리 차내마을 뒷산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집단 살해됐다.

진화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진화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정성아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